

사회

# 광주 기간제 교원 채용 부실투성이

### 서류·면접 1등 떨어뜨리고 2·3등 합격 최하점 기준 어기고 낮은 점수 쥐 탈락 공채절차 생략에 이력서도 안받고 선발

#### 시교육청 감사... 교사 교통신비 학생에 떠넘기기도

광주 전남중학교의 2011년 2월 기간제 교사 공채시험에 응시한 김모씨는 자신이 서류·면접을 통틀어 1등을 차지하고도 채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최근야 알게 됐다. 해당 학교가 김씨에게 합격사실을 알리지 않고 2, 3등 두 명을 채용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업무 담당자들이 “학년별 업무처리에 바빴던 상황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밝히자,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이들을 경고 조치하는 선에서 그쳤다.

광주시교육청이 최근 1년간 산하

기관,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정기·수시감사 결과 학교장이 채용권한을 행사하는 기간제 교원 등에 대한 부당·부적절 채용사례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에게 체험학습에 참가한 교사들의 교통비를 떠넘기거나, 보충수업을 하지 않고 강사료를 챙기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이들에게 경고·주의조치를 내렸다.

◇교원채용 제멋대로=진남초등학교는 기간제 교사 채용에서 면접 심사위원 6명이 약속한 듯 모두 채점기준(최하점 34점)을 어겨 점수를 주는

바탕에 특정 응시자가 4순위로 밀려나 3명만 뽑는 심사에서 탈락했다. 심사위원들이 특정 수험생에게 각각 23점~29점을 준 것이다.

연계초등학교의 한 교사는 지난 2011년11월 출장 근무중이었음에도 학교에서 2시간 동안 기초학습 부진 학생을 지도했다며 수당 4만원을 타냈다. 광주고등학교의 한 교사는 조를 쥐 특정 응시자를 탈락시켰다.

송정중학교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2월까지 기간제 교원 16명을 채용하면서 채용공고 등 공채절차를 생략했다. 월계초등학교도 이런 방식으로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기간제 교사 8명을 뽑았다.

무등중학교는 지난 2010년 9월 기간제 교사 선발과정에서 기본서류인 이력서도 받지 않고 교사를 선발했다.

◇도덕 불감증도=시교육청에서 학교평가를 공개하지 않은 한 초등학교는 학교에서 부당해야 할 교사들의 교통신비 87만3000여원을 학생들에게 떠넘겼다. 학교측은 수학여행 비용계산 과정에서 지도교사 17명의 교통비

(버스비)가 모자라자 학생 1명당 2126원씩 모두 411명에게 이 돈을 건넸다.

연계초등학교의 한 교사는 지난 2011년11월 출장 근무중이었음에도 학교에서 2시간 동안 기초학습 부진 학생을 지도했다며 수당 4만원을 타냈다. 광주고등학교의 한 교사는 조를 쥐 특정 응시자를 탈락시켰다.

송정중학교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2월까지 기간제 교원 16명을 채용하면서 채용공고 등 공채절차를 생략했다. 월계초등학교도 이런 방식으로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기간제 교사 8명을 뽑았다.

무등중학교는 지난 2010년 9월 기간제 교사 선발과정에서 기본서류인 이력서도 받지 않고 교사를 선발했다.

◇도덕 불감증도=시교육청에서 학교평가를 공개하지 않은 한 초등학교는 학교에서 부당해야 할 교사들의 교통신비 87만3000여원을 학생들에게 떠넘겼다. 학교측은 수학여행 비용계산 과정에서 지도교사 17명의 교통비

# 위조부품 74개 추가 발견

### 영광원전 냉각수 계통만 40개

#### 5·6호기 연내 재가동 힘들듯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부품의 교체와 조사 작업이 진행 중인 영광원전에서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부품이 추가로 발견됐다.

25일 영광원전 민관합동조사단(이하 민관조사단) 등은 영광 5·6호기에 추가된 위조 부품이 발견돼 제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견된 부품은 국내 3개 업체가 납품한 6개 품목 74개로 이중 40개가 1차기 발견된 부품으로 드러났다.

민관조사단은 나머지 34개 미검증 부품에 대해서도 실제 설치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미검증 부품 추가 발견으로 지난 23일 성능시험까지 마친 5호기는 다시 부품교체와 성능시험을 거쳐야 할 상황이 됐다.

또 부품 교체 작업이 대부분 끝나 조만간 성능시험에 들어갈 예정이었

던 6호기의 성능시험도 연기될 가능성이 커져 겨울철 전력수급 비상에 따른 연내 재가동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민관조사단 한 관계자는 “조사를 하면 할수록 마저 고구마 줄기처럼 미검증 부품이 연이어 발견되고 있다”며 “5·6호기 뿐만 아니라 원전 전 호기 부품 전반에 대한 검증과 국제적 수준의 안전성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해 대응책을 논의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민관조사단은 지난 19일 조사 과정에서 국내 원전부품 제작사 3곳의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냉각수 공급 계통 임펠러 2개 품목 4개 부품이 5·6호기에 설치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앞서 5일에는 또다른 국내 원전부품 제작사 2곳이 최근 2년간 미검증된 웨어링 등 8개 품목 17개 부품을 영광원전 1·2·3·4호기에 공급, 설치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도주 일산 성폭행범 검거

경찰 조사를 받다가 도주한 일산 성폭행 피의자 노영대(32)씨가 닷새 만에 경기도 안산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25일 오후 4시25분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노씨를 붙잡았다. 지난 20일 오후 7시40분경 일산경찰서에서 수갑을 찬 채 슬리퍼를 벗고 달아났다. 노씨는 지난 11일 일산의 한 아파트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17일 구속 수감돼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연합뉴스

# 차량 수습대 화풀이 펌크

○친구와 다룬 뒤 화를 참지 못하고 아파트에 주차된 수습대의 차량 타이어를 펌크거나 차체에 페인트칠을 한 10대 대학생이 경찰서행.

○25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노모(19)군은 지난 6일 새벽 2시30분께 광주시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조모(40)씨 차량의 타이어를 펌크하는 등 최근 2주 동안 차량 30대의 타이어를 펌크하거나 페인트칠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노군이 애꿎은 자동차에 화풀이를 하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속출했다”며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 약사법 위반 전남지역 약국 무더기 적발

무자격자가 의약품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전남지역 약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5일 전남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시·군 약국들을 대상으로 의약품 유통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난 9월말까지 모두 77곳이 적발됐다.

시·군별로 여수가 16곳으로 가장 많았고 순천(11곳), 목포(8곳), 영광(7곳), 보성(6곳) 등이 뒤를 이었다. 위반 내용은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저장·진열한 경우가 16건으로 가

장 많았으며, 의약품 판매가격 미표시 10곳, 약사 위생복·명찰 미착용과 처방전 기재 소홀이 각각 8곳이었다.

의약품과 비의약품을 혼합, 진열(7곳), 마약류 저장시설에 대한 기록부 미비(5곳), 무자격자 약품 판매와 약국의 의약품 판매(각 2곳) 등도 적발됐다. 적발된 약국은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45일간 영업정지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무허가 의약품을 판매한 업소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고발됐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25일 오후 광주시 북구 생운동 금호패밀리랜드 눈썰매장을 찾은 시민들이 경사로를 내려오며 즐거워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야호! 신난다

# “겨울철 배터리 방전 주범은 블랙박스”

#### 전문가들 “소비전류 10배”

겨울철 차량 배터리 방전이 대부분 블랙박스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차 차량의 블랙박스가 알려진 것보다 많은 배터리 전류를 소

비하면서 배터리의 성능을 저하시킨다는 것이다.

광주시 분산동에 거주하는 정모(여·55)씨는 최근 차량 배터리가 두 차례 연속 방전되는 일을 겪었다. 차량 결함을 의심한 정씨가 인근 자동차

차공업사에 찾아가 문의한 결과 방전의 주범은 차량 앞과 뒤에 설치된 블랙박스라는 진단을 들었다.

보통 차량 전기제품의 상시 배터리 전류 소비량은 0.03Ah(암페어/시간) 이하다. 전기제품의 전류가 0.03Ah 이하야 오랜 시간 사동이 걸려 충전하지 않더라도 차량 배터리의 방전 위험이 없다는 의미다. 그러나 시중에 판매 중인 대부분 블랙

박스가 이 기준을 크게 웃도는 최소 0.2Ah~0.3Ah의 전류를 사용한다는 것이 관련업체의 말이다.

한 보험회사 현장출동업체 직원 나모(45)씨는 “겨울이 되면서 기존에 비해 유독 배터리 방전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고 해 현장에 나가보면 블랙박스가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

# “중동도벽 심신장애 아니다”

#### 대법 상습절도 20대 실형확정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배후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백화점과 마트에서 7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됐으며 2010년 7월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모(25)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동절장애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5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백화점과 마트에서 23만원 상당의 헤드폰 등 70여만원어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에 앞서 2010년 7월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모(25)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1심은 징역 4월을 선고했으며 2심도 원심을 유지했다. /연합뉴스

# 눈이 피로하면 온몸이 피로하다

**안구건조, 눈피로, 만성피로 - 3단계 치료로 해결**

**안구건조·눈피로 눈이 마르고 건조하며 침침하고 쏟아질 것처럼 피로하다**

최근 직장인 및 수험생, TV를 자주 보는 어린이들이 호소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조금만 책을 들여다보거나 컴퓨터 모니터를 보다가 눈이 쏟아질 것처럼 피로하고 머리까지 무거워지는 증상을 보인다. 이런 증상을 ‘안구건조(眼球乾燥)’ 또는 안정피로(眼精疲勞)라고 한다. 눈피로는 보통 사람이라면 별로 피곤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에서도 쉽게 눈에 피로를 느끼고, 두통이나 시력장애, 복시(複視·사물이 두개로 보이는 현상)를 일으키고, 심할 때는 구토까지도 일으키는 질환이다. 물론 난시, 원시, 사시의 소유자는 더욱 빨리 피로증세를 보인다. 정상적인 시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안정피로 증상을 호소 정상적인 시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안정피로 증상을 호소한다면 원인은 간에서 찾아야 한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간 기능이 울체되고 시간이 지나 간화(肝火) 혹은 간열(肝熱)이 쌓이면 그 열이 머리와 눈으로 표출된다.

이 때 간의 화기(火氣)가 인체의 상부인 머리와 눈에 영향을 미쳐 눈이 마르고 건조해지며, 침침해지고 피로해지며 심하면 눈에서 물을 흘리는 것 같은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또한 눈을 뜨기가 힘들어 눈을 감고자 하고 상대방 눈을 쳐다보기가 힘들며 상대방도 눈을 쳐다보면 눈이 피로해진다거나 눈에 이물감이 있는 것 같고 말기상화에 가까워지면 눈에 통증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 때 간의 화기(火氣)가 인체의 상부인 머리와 눈에 영향을 미쳐 눈이 마르고 건조해지며, 침침해지고 피로해지며 심하면 눈에서 물을 흘리는 것 같은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또한 눈을 뜨기가 힘들어 눈을 감고자 하고 상대방 눈을 쳐다보기가 힘들며 상대방도 눈을 쳐다보면 눈이 피로해진다거나 눈에 이물감이 있는 것 같고 말기상화에 가까워지면 눈에 통증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만성피로 쉬어도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전신피로는 아무런 검사도 해봐도 특별한 질환으로 발견되지 않지만 일상에서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조금만 육체적인 일을 해도 피곤이 가중되며, 휴일에 잠을 자도 피곤이 개선되지 않고 깊은 잠을 잘 수도 없다. 뒷목이 항상 뻣뻣하다. 눈이 자주 침침해지고 일이 자주 마른다. 업무능력이 크게 떨어진다. 폭 자기 위기 등 나름대로의 피로회복 대책으로 피로를 풀려고 할 뿐 피로를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해야 할 질환이라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피로야말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질환이다. 과도한 피로증세는 몸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내보내는 건강의 적신호이기 때문이다. 이런 전신피로, 만성피로 증세는 한방치료가 제격이다. 단지 증상만을 잡는 것이 아니라 몸을 보(補)해주는 한약 자체의 특성

**인다라 한의원**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60-24 광주은행 6층  
www.indara.co.kr (광천사거리 광천파출소 맞은편)

**광주점 062-368-5075**  
대한민국의사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20106-총-9819호-광주

★ 보육교사는 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며, 영유아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교사입니다.

2013년도 제2기  
**보육교사교육원 학생모집**

**교육안내**

- 교육기간 : 2013년 2월 18일(월) ~ 12월 중순(약 10개월)
-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수업
- 교육시간 : 주간반 오전 9:30~11:10 / 야간반 오후 6:30~10:10

**제출서류**

- 본 교육원 입소신청서(소정양식) 1부
-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2매  
※ 원서접수시 전형료 : 5,000원

**전형방법**

- 서류 및 면접전형 : 2013년 1월 14일(월) 오전 10시

**원서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및 마감일 : 2012년 12월 3일(월) ~ 2013년 1월 11일(금)  
※ 토요일, 공휴일은 휴무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2013년 1월 11일(금) 도착분에 한함)
- 원서접수처 : 본 대학교 교육원 교학처

**문의할 곳** 교학처 김승호 선생

- TEL 062)605-1112, 605-1023 FAX 062)572-0264
- E-mail : krimsen@hanmail.net
-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 소로 36번지 광신대학교 교학처

**★ 보육교사 자격 및 진로 ★**

보건복지부에서 위탁 선정된 광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에게 소정의 과정(보육교사양성교육과정 1년)을 수료하면 보육교사직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등에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자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누구나 지원가능합니다. (단, 4주간의 현장실습(10월경)이 가능한 분야여야 함)

**광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